연합뉴스 인쇄하기 닫기

포스텍 학생·동문 3명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선정

기사입력 2019/04/04 13:52 송고

젊은 리더
(포항=연합뉴스) 포브스의 아시아 영향력 있는 리더에 뽑힌 포항공대 학생과 동문(왼쪽부터 금도희씨, 윤관호씨, 이다솔씨). 2019.4.4 [포항공과대학교 제공]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4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2019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학생과 동문 3명이 뽑혔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 23개국에서 10개 부문에 걸쳐 총 300인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고 있다.

올해는 포항공대 동문과 학생 가운데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금도희씨, 기계공학과 통합과정 윤관호씨,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이다솔씨가 '헬스케어·과학' 부문 30인에 포함됐다.

금도희씨는 지도교수인 한세광 교수와 함께 렌즈로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렌즈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 버블러를 창업했다.

윤관호, 이다솔씨는 노준석 지도교수와 함께 높은 회절 효율을 갖는 메타표면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이 메타표면은 투명망토 기술을 비롯해 입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포항공대는 지난해에는 동문과 학생, 연구원, 교수 등 5명이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에 뽑혔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13:52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